

『석마하연론(釋摩訶衍論)』의 식(識)에 대한 독창적인 관점*

— 일체일심식, 10아리아식, 11말나식을 중심으로

김지연

금강대학교 학술연구교수
dodododo82@hanmail.net

- I. 들어가는 말
- II. 『석론』의 관점에서 해석한 『능가경』의 식(識)
- III. 『석론』의 독창적 심식설의 논리성
- IV. 나오는 말

요약문

『석마하연론』은 『대승기신론』의 주석서 가운데 하나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독자적인 이론을 정립하는 해석적 특징을 보인다. 『석마하연론』의 독창적인 관점은 세 가지 『능가경』의 식에 대한 해석에서도 드러난다. 우선, 『능가아발다라보경』의 현식과 『입능가경』의 요별식을 현상아리아식으로 정의한다. 현상아리아식은 『석마하연론』이 창안한 열 가지 아리아식 중 하나로 『능가경』의 현식과 요별식을 아리아식으로 이해하는 『석마하연론』의 관점을 표출한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 S1A5B5A02026674)

본 논문은 2018년도 불교학연구회 가을 논문발표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다음으로, 『능가경』의 분별사식을 거친 분위의 의식과 미세한 분위의 말나식으로 이해하여, 『능가아발다라보경』의 진상과 『입능가경』의 지상식이 말나식이라고 설명한다. 말나식을 인정하는 것은 원효의 해석과 동일하지만, 지상식을 아리아식이 아닌 말나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능가경』이 나타낸 의미와는 다르다. 한편, 『석마하연론』은 새로운 시각에서 말나식을 근본무명과 다섯 가지 불각상-식의 열한 가지로 명칭화한다.

그러나 『석마하연론』의 독창적인 심식설인 열 가지 아리아식과 열한 가지 말나식은 업상업식·전상전식·현상현식의 영역을 공유하게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서로 다른 아리아식과 말나식이 동일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마하연론』은 ‘하나의 식을 세워 모든 식을 총섭’하는 ‘하나의 식’이라는 이론과 ‘일체일심식’을 설정한 것으로 추론된다. 이에 근거한다면 아리아식과 말나식이 각각 열 가지와 열한 가지로 세분화 될 수 있고, 일체일심식에 아리아식과 말나식을 포함시켜 두 식을 동등한 위치에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독창적인 심식설을 통해, 『석마하연론』은 아리아식과 말나식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표명함과 동시에 다른 논서와의 해석상의 상충을 해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여 자신의 논리상의 모순을 해결하고 논리적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석마하연론』, 『대승기신론』, 『능가경』, 열 가지 아리아식, 열한 가지 말나식, 분별사식, 일체일심식

I. 들어가는 말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이하 『기신론』으로 약칭)에는 아리아식(阿梨耶識)¹⁾·화합식(和合識)²⁾·의식(意識)³⁾·업식(業識)⁴⁾·전식(轉識)⁵⁾·현식(現識)⁶⁾·지

1) 『大乘起信論』(『大正藏』32, p.576中; 577中).

2) 『大乘起信論』(『大正藏』32, p.576下).

3) 『大乘起信論』(『大正藏』32, p.577中; 579上).

4) 『大乘起信論』(『大正藏』32, p.577中; 578上; 578中; 579中; 579下; 581中).

5) 『大乘起信論』(『大正藏』32, p.577中; 579中; 581上).

6) 『大乘起信論』(『大正藏』32, p.577中).

식(智識)⁷⁾·상속식(相續識)⁸⁾·분리식(分離識)⁹⁾·분별사식(分別事識)¹⁰⁾이라는 식의 명칭이 등장한다. 화합식은 아리아식이고, 업식·전식·현식·지식·상속식은 다섯 가지 의(意)이고, 분리식과 분별사식은 상속식의 다른 이름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기신론』에는 ‘말나식(末那識)’이 언급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신론』의 주석서인 원효(元曉)의 『기신론소(起信論疏)』¹¹⁾나 법장(法藏)의 『대승기신론의기(大乘起信論義記)』¹²⁾ 등에는 말나식이 출현한다. 『기신론』의 또 다른 주석서인 『석마하연론(釋摩訶衍論)』(이하 『석론』)으로 약칭)에서도 말나식이 나온다.¹³⁾ 『석론』에서 이 식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제 7식을 의미하지만, 독창적인 관점에서 말나식에 열한 가지 명칭을 부여하는 해석이 더해져서 다른 논과 차별된다.

『석론』에는 용수(龍樹)를 저자로 기록하고 있어, ‘식’에 대한 독창적인 시각이 용수의 견해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용수 이후의 경전이 인용되어 있거나 『본업경(本業經)』 등의 중국에서 찬술된 경전들이 언급되기 때문에 용수의 진찬에 대한 논란은 8세기부터 이어졌다.¹⁴⁾ 따라서 용수가 아닌 누군가가 독창적인 개념을 건립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아 저자를 밝힐 수는 없다. 다만 『실담장(悉曇藏)』¹⁵⁾ 등의 기록에 비추어 본다면 신라 승려 월충(月忠)의 저작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7) 『大乘起信論』(『大正藏』32, p.577中).

8) 『大乘起信論』(『大正藏』32, p.577中).

9) 『大乘起信論』(『大正藏』32, p.577中).

10) 『大乘起信論』(『大正藏』32, p.577中; 578中; 579中).

11) 『起信論疏』(『大正藏』44, p.212下; 213上; 214中; 215上).

12) 『大乘起信論義記』(『大正藏』44, p.263上; 265上).

13)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06; 611-613; 626-631; 635-636).

14) 望月信亨, 「釋摩訶衍論の眞偽」, 『佛書研究』26(東京: 名著普及會, 1917), pp.1-5; 香川英隆, 「釋摩訶衍論の史的 연구」, 『密教研究』8(高野山: 密教研究會, 1922), pp.32-44; 中村正文, 「釋摩訶衍論の成立問題について」, 『印度學仏敎學研究』34(東京: 日本印度學仏敎學會, 1986), pp.534-539; 鹽入亮忠, 『國譯一切經-印度撰述部』(東京: 大東出版社, 1938), pp.1-19; 石井公成, 「釋摩訶衍論の成立事情」, 『鎌田茂雄博士還曆記念論集』(東京: 大藏出版, 1988), pp.345-364; 関悠倫, 「『釈摩訶衍論』の成立事情: 序の記述と武則天と則天文字」, 『密敎學研究』50(東京: 日本密敎學會事務局, 2018), pp.93-109참조.

15) 『悉曇藏』(『大正藏』84, p.374中-下).

『석론』의 독창적인 열한 가지 말나식은, 『기신론』을 해석하면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독자적인 이론을 정립하는 『석론』의 해석적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식에 대한 『석론』의 독특한 관점은 말나식에서 그치지 않고 아리아식을 열 가지로 세분화하며, 일체일심식(一切一心識)과 같은 식도 창조한다. 그런데 『석론』의 독창적인 심식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는 ‘『석론』의 저자는 어떤 이유로 말나식을 열한 가지로 제시한 것일까?’이다. 둘째는 ‘열한 가지 말나식은 『석론』의 다른 독창적인 식설과 모순은 없는 것일까?’이다. 셋째는 ‘열한 가지 말나식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일까?’이다.

지금까지 『석론』의 독창적인 심식설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¹⁶⁾ 위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본 연구를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석론』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석론』은 독자적인 주장을 내세울 때 차별성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이론이 의도하는 바가 있었다. 또한 『석론』만의 용어를 사용하여 독창적인 논리를 펼칠 때에도 그것의 타당성을 입증해 줄 이론적 토대를 갖추어 놓았다. 그러므로 우선 II장에서는 『석론』(제4권)이 『기신론』의 다섯 가지 의(意)를 해석하면서 『능가경』을 인용하는 부분을 통해 열 가지 아리아식과 열한 가지 말나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열한 가지 말나식을 건립한 이유를 밝혀보고, 『석론』의 독창적인 아리아식과 말나식과의 모순점 및 이론적 배경을 검토해보려고 한다.

16) 본고의 II장에서 제시한 『능가경』에 대해 加藤精一, 「『釋摩訶衍論』に引用された『楞伽經』」, 『豊山學報』 31(東京: 豊山教學振興會, 1986), pp.1-14에서 일부분으로 다루고 있지만, 심식설을 주목하여 해석하지는 않았다. 아리아식에 대해서는 早川 道雄, 『釋摩訶衍論』における〈阿梨耶識門〉構圖の起源, 『豊山學報』 51(東京: 豊山教學振興會, 2008), pp.107-134.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리고 김지연, 「『釋摩訶衍論』의 註釋의 研究」, 박사학위논문(동국대학교대학원, 2014), pp.105-131도 열 가지 아리아식과 열한 가지 말나식을 다룬다. 그러나 두 식의 상호관계와 『석론』에 인용된 『능가경』의 심식설은 검토하지 않았다. 열 가지 아리아식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논문에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II. 『석론』의 관점에서 해석한 『능가경』의 식(識)

『석론』은 여러 차례 『능가경(楞伽經)』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하지만 『능가아발다라보경(楞伽阿跋多羅寶經)』, 『입능가경(入楞伽經)』, 『대승입능가경(大乘入楞伽經)』과 같은 현존하는 한역 『능가경』의 경명이 아닌, ‘대본의 『능가경』(大本楞伽)’·‘대본이’ 나뉘어 유전된 『능가경』(分流楞伽)’·‘인연의 『능가경』(因緣楞伽)’·‘사나의 『능가경』(沙羅楞伽)’·‘반시다의 『능가경』(盤尸多楞伽)’의 명칭을 사용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능가아발다라보경』과 『입능가경』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지만,¹⁷⁾ 나머지는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¹⁸⁾

『능가경』은 『석론』에서 『기신론』의 여섯 가지 상[六相:智相·相續相·執取相·計名字相·起業相·業繫苦相]을 해설하는 부분에서도 아래와 같이 인용된다.

이 『능가경』에서는 무릇 몇 가지의 식을 밝히는가, 두 문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첫째는 간단히 설하는 문이고, 둘째는 자세히 설하는 문이다. 이와 같은 두 문에는 세 본 각각의 다른 설이 있다. 무엇이 다른 설인가. 이른바 하나의 [대본이] 나뉘어 유전된 『능가경』에서 이와 같이 설한다. ‘대혜여, 간단히 설하면 세 종류의 식이 있고, 자세히 설하면 여덟 가지의 상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이른바 진식, 현식, 분별사식이다.’ 또 하나의 [대본이] 나뉘어 유전된 『능가경』에서 이와 같이 설한다. ‘대혜여, 자세히 설하면 여덟 종류의 식이 있고, 간단히 설하면 두 가지의 식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첫째는 요별식이고, 둘째는 분별사식이다.’ 또 하나의 [대본이] 나뉘어 유전된 『능가경』에서 이와 같이 설한다. ‘대혜여, 간단히 설하면 네 종류의 식이 있고, 자세히 설하면 일곱 가지의 식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이른바 업식, 전식, 현식, 분별사식이다.’ 이와 같은 세 경은 바로 진실된 설이고, 마땅히 귀의해야 한다.¹⁹⁾

17) 김지연, 인용경전에 근거한 『釋摩訶衍論』의 저술시기 고찰, 『불교학연구』45(서울: 불교학연구회, 2015), p.171 각주27, 각주28 참조.

18) 『석론』이 제시한 因緣楞伽, 沙羅楞伽, 盤尸多楞伽(『大正藏』32, p.627中) 등의 『능가경』은 현존하지 않는 다른 『능가경』이 있었을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지만, 『석론』에 인용된 다른 경전과 같이 『석론』의 저자가 창작한 경전일 가능성도 있다.

『석론』은 여섯 가지 상을 의식지(意識地)²⁰⁾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식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세 종류의 『능가경』을 제시하여 이 경에서 말하는 ‘식’을 분석하는데, 각각 3가지·2가지·4가지로 간단히 설하는 문과 8가지·7가지로 자세히 설하는 문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이와 같이 『능가경』의 식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석론』은 자신의 독창적인 심식설인 열 가지 아리아식과 열한 가지 말나식을 드러내는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석론』의 열 가지 아리아식과 『능가경』의 현식(現識)

첫 번째 『능가경』은 『능가아발다라보경』²¹⁾이다. 이 경에서는 식을 진식(眞識)·현식(現識)·분별사식(分別事識)의 세 가지로 간략하게 나타내고, 자세하게는 여덟 가지로 분류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²²⁾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능가경』의 식을 『석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첫 번째 ‘진식’은 바로 이 근본무명의 소훈이 되는 본각의 ‘진심’이고, 두 번째 ‘현식’은 바로 ‘현상아리아식’이고, 셋째 ‘분별사식’은 바로 ‘의식’으로 거친 것은 의식, 미세한 것은 바로 말나이다. … 여덟 가지 식이란, 아리아·말나·의식·오식신으로 이것을 여덟 가지라고 한다. 어떻게 여덟이 되는가. 하나의 의식에서 일곱 가지를 나누기 때문이다.²³⁾

19)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27上-中), “此楞伽經凡明幾識 卽有二門 云何爲二 一者略說門 二者廣說門 如是二門中三本各異說 云何異說 謂一本分流楞伽契經中作如是說 大慧略說有三種識 廣說有八種相 何等爲三 謂眞識現識分別事識 又一本分流楞伽契經中作如是說 大慧廣說有八種識 略說有二種識 何等爲二 一者了別識 二者分別事識 又一本分流楞伽契經中作如是說 大慧略說有四種識 廣說有七種識 云何爲四 謂業識轉識現識分別事識 如是三經直是眞說 當應歸依.”

20)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26中), “如是六相皆意識地非餘識法.”

21) 『楞伽阿跋多羅寶經』(『大正藏』16, p.483上).

22) 『楞伽阿跋多羅寶經』의 뒷 부분에서 “여래장[이라 불리는] 장식 [즉] 심과, 의와, 의식 그리고 다섯 가지의 식신이다(大慧 善不善者 謂八識 何等爲八 謂如來藏名識藏 心意意識及五識身. 『大正藏』16, p.512中.)” 해석은 이상민, 「초기 지론학파의 알아야식 개념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2018), p.91 참조.

논자도 『능가아발다라보경』의 “大慧 五識身者心意意識俱(512中)”이라는 서술에 근거하여 여덟 가지는 오식신·의식·의·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3)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27中), “第一眞識 直是根本無明所熏本覺眞心 第二現識 直是現相阿梨耶識 第三分別事識 直是意識 麤分意識 細分卽末那故 … 此契經中八種識者 阿梨耶末那意識及五識身 是名爲八

『석론』의 해석에 따르면, 세 가지 식 가운데 ‘현식’은 ‘현상아리야식’이므로 여덟 가지 식의 ‘아리야식’에 해당한다. ‘현상아리야식’은 『석론』의 독창적인 시각에서 출현한 아리야식으로, 『석론』은 아리야식을 대섭주아리야식(大攝主阿梨耶識)·근본무명아리야식(根本無明阿梨耶識)·청정본각아리야식(淸淨本覺阿梨耶識)·염정본각아리야식(染淨本覺阿梨耶識)·업상업식아리야식(業相業識阿梨耶識)·전상전식아리야식(轉相轉識阿梨耶識)·현상현식아리야식(現相現識阿梨耶識)·성진여리아리야식(性眞如理阿梨耶識)·청정시각아리야식(淸淨始覺阿梨耶識)·염정시각아리야식(染淨始覺阿梨耶識)²⁴⁾의 열 가지로 세분화한다. 다시 말하면, 『석론』은 『기신론』에서 세 가지 미세한 상인 무명업상(無明業相)·능견상(能見相)·경계상(境界相)과 대응되는 업식(業識)·전식(轉識)·현식(現識)에 따라 ‘현식’을 ‘경계상’ 즉 ‘현상’으로 파악하고, 이에 아리야식을 결합시킨 것이다. 이 외에도 『석론』은 『능가경』을 인용한 다른 부분²⁵⁾에서 ‘자성이 상주하는 현식의 바다’²⁶⁾, ‘일곱 가지 전식의 내인이 되는 현식의 체’²⁷⁾라고 서술하면서, 『능가경』의 ‘현식’을 ‘장식(藏識)’ 즉, ‘아리야식’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석론』은 세 가지 미세한 상과 식을 연결할 때 아리야식에 ‘업상·전상·현상’을 배대하고 있으므로, 아리야식을 현상아리야식으로만 한정한다면 아리야식의 범위에서 오차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석론』은 “거친 현식을 들어서 미세한 업식·전식을 나타낸다”²⁸⁾고 하면서 세 가지 미세한 식 가운데 가장 거친 현식을 대표로 들어, 그 보다 미세한 나머지 두 가지 식도 아리야식임을 명확하게 한다. 이와 같은 『석론』의 아리야식의 범위는 위에서 제시한 열 가지 아리야식에 ‘업상업식아리야식’과 ‘전상전식아리야식’이 포함된 것을 통해서

何故成八一意識中分七種故”

24) 『釋摩訶衍論』(『大正藏』32, pp.612中-613中).

25)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26中-下); 『楞伽阿跋多羅寶經』(『大正藏』16, p.484中).

26)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26下), “謂欲顯示現識之海性自常住.”

27)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26下), “七種轉識現識之體以爲內因.”

28)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27中), “學識現識顯細業轉.”

도 확인된다.

다음으로 세 번째의 ‘분별사식’을 『석론』은 ‘의식’으로 해석하면서, 거침과 미세함의 분위에 따라 다시 나누어 ‘의식’과 ‘말나식’을 나타낸다. 따라서 여덟 가지 식과 연결지어보면 말나식과 의식이 되며, 위의 인용문의 마지막에 “의식에서 일곱 가지를 나눈다”라는 『석론』의 설명을 통해 오식신도 의식인 분별사식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해보면 『석론』은 『능가아발다라보경』의 식을 해석하면서, 간략히 나타내는 세 가지 식 중 진식을 제외한 두 가지 식[현식·분별사식]으로 자세하게 설한 여덟 가지 식을 나타내었다. 그렇다면 『석론』이 ‘본각진심’이라고 해석한 ‘진식’²⁹⁾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능가경』에서 하나의 식으로 이름을 붙여 건립하였다면 여덟 가지 안에서 표현되었어야 했는데, 배제시킨 이유가 의문으로 남는다. 하지만 『석론』에서 진심은 앞에 ‘본각’을 붙여서 강조하여 표현하였듯이 본각을 의미하고,³⁰⁾ 본각의 아리아식의 두 가지 의(義) 가운데 각(覺)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비록 『석론』이 진식에 대해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리아식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¹⁾

2. 『석론』의 열한 가지 말나식과 『능가경』의 지상식(智相識)

두 번째 『능가경』은 『입능가경』³²⁾이지만, 세 번째 『능가경』은 위에 인용된 내용과 동일한 문장을 포함한 『능가경』이 없어서 어떤 경전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 두 『능가경』의 식에 대해 『석론』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29) 『楞伽經』 범본(LAS 37, 13)에서 眞識의 범어는 jātilakṣaṇa로 ‘출이라는 특징’의 의미이다. 大竹晉, 『大乘起信論成立問題の研究』(東京: 國書刊行會, 2017), p.202 참조.

30) 『釋摩訶衍論』(T32, p.620下), “謂本覺真心從本已來 遠離動念解脫結縛”; (p.620下), “謂無明滅諸識皆盡 本覺真心無有壞滅.” ‘움직이는 망념을 떠났다’, ‘무명이 멀해도 변하지 무너지거나 소멸하지 않는 다’는 진심을 서술한 표현은 본각의 성품을 나타내므로, 진심이 본각임을 알 수 있다.

31) Jiyun Kim, “Yogācāra Elements in the *Shi moheyan lun* 釋摩訶衍論” 3.1. The real consciousness of the Shilun: The true mind of original enlightenment, AAR(2018, Denver) 발표문 참조.

32) 『入楞伽經』(『大正藏』16, p.522上).

첫 번째 요별식은 바로 현상아리아식이고, 두 번째 분별사식은 바로 의식으로 의미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고, 동일하게 말나를 설한다. 저 처음의 경에서 이름해서 ‘진상’이라고 말하고, 이 두 번째 경에서 ‘지상식’이란 다른 이름의 같은 의미이다. 말나의 계위에서 처음으로 나에 대한 분별[慧數]을 일으켜서 경계를 분별함을 지상식이라 이름한다. 이와 같은 지식이 경계를 연하여 진실의 상에 대한 해를 지어 전하기 때문에 진상이라 이름한다. 여기서 여덟 가지 식은 앞과 비교해서 알 수 있다. 마지막 계경 중의 네 종류의 식의 식법은 글에서 밝히기 때문에 생략해서 다시 설하지 않는다. 일곱 가지 식이란 말나와 의식을 총합하여 하나로 하기 때문이다. 거칠고 미세함으로 나누더라도 오직 하나의 식이다.³³⁾

『석론』은 두 번째 『능가경』인 『입능가경』의 요별식(了別識)을 현상아리아식으로 보았으므로, 이 식은 위에서 살펴본 『능가아발다라보경』의 현식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별사식은 의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면서 『능가아발다라보경』에서와 같이 비록 거친 분위만을 드러내어 ‘의식’이라고 하지만 미세한 ‘말나식’도 내포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식을 여덟 가지로 상세히 나타내는 것은 위의 『능가아발다라보경』과 같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세 번째 『능가경』에서는 식을 간략하게는 업식·전식·현식·분별사식으로 구분한다. 『석론』의 견해에 따른다면 업식·전식·현식은 모두 아리아식을 의미하므로, 이 네 가지는 아리아식과 분별사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것은 ‘현식’과 ‘요별식’처럼 업식과 전식을 현상아리아식에 포함시켜 표현하였는지 아니면 각각을 모두 드러내었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동일하게 아리아식을 나타낸다. 식을 자세하게 풀이하는 것은 첫 번째의 『능가경』인 『능가아발다라보경』에서 아리아식·말나식·의식·오식신의 여덟 가지 식 가운데 말나와

33)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27中-下), “第一了別識 直是現相阿梨耶識 第二分別事識 直是意識 義如前說 同說末那 彼初經中名言眞相 此中經中智相識者 異名同義 末那位中始有慧數 分別於塵名智相識 如是智識所緣境中 作眞實之相解 而轉故名眞相 此中八識比前可知 後契經中四種識法 文相明故且略不說 言七識者 末那意識總爲一故.”

의식을 하나의 ‘의식’으로 보아 일곱 가지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한다.

두 가지 [대본이] 나뉘어 유전된 『능가경』에 대한 해석을 종합해보면, 『석론』은 각각의 『능가경』에서 서로 다르게 분류되는 식을 동일한 범위에서 파악하고 있다. 즉, 식을 간단히 분류하면 아리아식과 분별사식이고, 자세히 분류하면 아리아식·말나식·의식·오식신이 된다.<표 1>

<표 1> 『능가경』의 식에 대한 『석론』의 해석

『능가경』	간단히 설함		자세히 설함		
	『능가경』의 식	『석론』의 해석	『능가경』의 식	『석론』의 해석	
『능가아발다라보경』	3種	진식	= 본각의 진심	8種	아리아식 말나식 의식 오식신
		현식	= 현상아리아식 ⊃ 업식, 전식		
		분별사식			
『입능가경』	2種	요별식	= 현상아리아식	8種	아리아식 말나식 의식 오식신
		분별사식	= 의식 = 말나식		
[대본이] 나뉘어 유전된 『능가경』 (출처불분명)	4種	업식		7種	아리아식 말나식+의식 오식신
		전식			
		현식			
		분별사식			

『능가경』의 식에 대한 해석에서 주목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은 『석론』이 첫 번째 『능가경』의 ‘진상(眞相)’과 두 번째 『능가경』의 ‘지상식(智相識)’을 동일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첫 번째 『능가경』은 『능가아발다라보경』으로, 이 경에서는 “모든 식에 세 종류의 상이 있고, 이른바 전상·업상·진상이다”³⁴⁾라고 말한다. 『석론』은 이 세 종류의 상 가운데 마지막의 진상을 “의식의 미세한 분위의 말나식이다”³⁵⁾라고 해석한다.³⁶⁾ 두 번째 『능가경』은 『입능가경』으로,

34)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27中); 『楞伽阿跋多羅寶經』(『大正藏』16, p.483上), “諸識有三種相 謂轉相 業相眞相.”

35)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27中), “第三眞相 卽是意識細分所攝之末那識.”

36) 인도의 주석가 즈나니쉬리바드라는 ‘전상’을 대상에 대해 발생하는 식, ‘업상’을 식이 발생한 후

이 경에서 “대혜여! 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 세 번째는 지상식이다”³⁷⁾라고 한다. 『석론』의 해석에 따르면, 지상식은 진상과 같으므로 말나식이 되는데, 지상식을 “말나의 계위에서 처음으로 나에 대한 분별을 일으켜서 경계를 분별함”으로 정의하는 것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이와 같은 『석론』의 해석은 『기신론』의 여섯 가지 상 가운데 지상(智相)에 대응되는 ‘지식(智識)’과 동일한 특성을 나타내며, 『석론』에서 『기신론』의 여섯 가지 거친 상 가운데 지상(智相)과 그에 대응되는 지식(智識)을 말나식에 위치시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와 같은 말나식에 대해 『석론』은 『기신론』의 다섯 가지 의와 의식을 총체적으로 논의하는 부분에서 말나식의 열한 가지 의미(이하 ‘열한 가지 말나식’으로 칭함)를 상세하게 서술한다.

이 말나식은 열한 가지 의미를 갖추어 짓지 않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저 경에서 열한 가지 뜻의 명칭을 생략하여 따로 말하지 않았으므로 이 논에서는 열한 가지의 다른 이름을 모두 들어 분명하게 나타내 보인다. 무엇이 열한 가지 종류의 명칭인가. 첫 번째는 근본무명이고, 두 번째는 업상이고, 세 번째는 전상이고, 네 번째는 현상이고, 다섯 번째는 지상이고, 여섯 번째는 상속상이고, 일곱 번째는 업식이고, 여덟 번째는 전식이고, 아홉 번째는 현식이고, 열 번째는 지식이고, 열한 번째는 상속식이다. 이것이 열한 가지 명칭이다.³⁸⁾

열한 가지 말나식을 정리해보면 근본무명, 업상-업식, 전상-전식, 현상-현식, 지상-지식, 상속상-상속식이다. 『석론』은 말나식에 근본무명과 그로 인해

대상을 이해하는 작용, ‘진상’을 아리아식으로 본다고 한다. Seong-cheol Kim, “Wonhyo’s View of the *Ālayavijñāna*”,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Culture* Vol.26 (Seoul: Dongguk University, 2016), p.97 참조.

37) 『入楞伽經』(『大正藏』16, pp.521下-522上), “大慧 識有三種……三者智相識。”

이 부분은 『석론』에 인용되어 있지 않고, 『입능가경』에서도 ‘지상식’이란 단어는 여기서 한 번 등장한다.

38)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29中-下) “是末那識具足十一義無所不作故 彼契經中十一義名略不別說 是故論者 具舉十一種之別名分明顯示 云何名為十一種名 一者根本無明 二者業相 三者轉相 四者現相 五者智相 六者相續相 七者業識 八者轉識 九者現識 十者智識 十一者相續識 是名十一。”

움직임이 일어나 생성되는 미세한 상과 식 및 거친 상과 식을 모두 포함시킨다. 그런데 말나식이라는 하나의 식으로 모든 식의 의미를 표현한 『석론』의 창의적 관점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있는 것일까?

말나식에 열한 가지 명칭을 건립한 이유로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능가경』에 대한 『석론』의 해석에 정합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오오다케 스스무에 의하면 『능가경』의 범본에서 지상식은 jātilakṣaṇa 이고 jātilakṣaṇa는 아리아식이므로³⁹⁾, 지상식은 아리아식이 된다. 지상식을 말나식으로 본 『석론』의 이해가 『능가경』 본래의 뜻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인용한 문헌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나 의미의 왜곡으로 비취질 수 있다. 하지만 『석론』은 열한 가지 말나식을 통해서, 지상식을 말나식으로 정의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출함⁴⁰⁾과 동시에 말나식에 아리아식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 『능가경』과의 해석적 충돌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말나식을 인정하는 입장과 이 식에 대한 이해를 보이려는 『석론』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기신론』의 주석서에서 말나식에 대해 인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이 나뉜다. 전자는 원효의 입장이고 후자는 법장의 입장이다. 이 가운데 『석론』은 원효의 『기신론소』⁴¹⁾와 동일하게 지상-지식을 제7 말나식으로 정의하면서, 원효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석론』은 말나식을 식의 영역에 위치시키고 열한 가지 명칭을 부여하면서도, 이 식의 의미나 다른 식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기신론소』⁴²⁾나 법장의 『대승기신론의기』⁴³⁾를 통해서 살펴보면, 말나식은 아리아식을 의

39) 『楞伽經』 범본에서 ‘지상식’은 jātilakṣaṇa로 ‘진식’과 동일하다. 이에 대해 오오다케 스스무는 범본의 문맥 및 인도 주석을 참고로 하면 jātilakṣaṇa는 아리아식을 의미한다고 밝힌다. 大竹晉, 앞의 책, p.456 참조.

40) 『석론』이 『능가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해동소』나 『법장』에 인용된 부분만을 취했기 때문에 생긴 해석상의 오류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석론』은 말나식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자신의 해석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41) 『起信論疏』(『大正藏』44, p.214上), “智識者是第七識.”

42) 『起信論疏』(『大正藏』44, p.212下).

43) 『大乘起信論義記』(『大正藏』44, p.263上). 법장은 아리아식과 의식을 들어 말나식을 설하지 않은 이유를 밝힌다.

지하여 생성되고, 경계에 반연하여 발생하는 의식과 상응하는 식이다. 열한 가지 말나식에 대응시켜 본다면, 업상-업식·전상-전식·현상-현식은 아리아식이 되고, 지식-지상·상속식-상속상은 의식이 된다. 원효와 법장이 이해한 말나식의 성품이 『석론』이 제시한 열한 가지 말나식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석론』은 비록 말나식을 자세하게 서술하지 않았지만 열한 가지 명칭을 통해, 무명을 따라 별도의 체(體)를 갖지 않고 아리아식을 체로 전변하여 경계에 반연하는 말나식의 성품[性]을 나타낸 것이다.

정리해보면, 『석론』은 세 종류의 『능가경』에서 말하는 분별사식을 미세함과 거침으로 분위기를 나누어 말나식과 의식을 표현한다. 특히 지상식을 아리아식에 두는 『능가경』에서의 의미와 다르게 말나식으로 정의하면서 열한 가지 말나식을 주장한다. 『석론』에서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아 그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능가경』과의 해석적 상충을 해소하고 말나식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추론된다.

III. 『석론』의 독창적 심식설의 논리성

1. 열 가지 아리아식과 열한 가지 말나식의 건립

『석론』은 세 종류의 [대본이] 나뉘어 유전된 『능가경』의 식설을 해석하면서 열 가지 아리아식과 열한 가지 말나식을 통해 식에 대한 독자성을 표출하였다. 그런데 『석론』이 주장하듯이, ‘아리아식’이나 ‘말나식’과 같은 하나의 식이 여러 가지 다른 식을 함유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거하면, 『석론』은 독창적인 해석을 제시할 때 단순히 차별화된 용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논 전체의 체계에 맞물리도록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석론』의 창의적인 아리아식관과 말나식관의 논리적 바탕은 『석론』 제2권에서 『기신론』의 ‘심생멸’⁴⁴⁾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석론』은 열두 종류의 경전(<표 2>⁴⁵⁾참조)을 들어 여러 경전에 설해진 식의 개수를 기준

으로 심식설을 열 가지로 정리한다.⁴⁶⁾

무릇 일대의 모든 성인이 설하는 가운데 다른 설의 계경을 모으면 총합해서 열 가지가 있다. 한 가지의 식에서 열 가지의 식에 이른다. 무엇이 열 가지 차별의 경이 되는가. 첫째는 한 가지 식을 세워서 모든 식을 총섭한다. 이 가운데 넷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첫째**는 일체일심식을 세워서 모든 식을 총섭한다.……**둘째**는 아리아식을 세워서 모든 식을 총섭한다.……**셋째**는 말나식을 세워서 모든 식을 총섭한다.……**넷째**는 하나의 의식을 세워서 모든 식을 총섭한다.……⁴⁷⁾

위에 인용한 내용은 열 가지 분류 가운데, 한 가지 식만을 건립하여 모든 식을 포섭하는 첫 번째 사항만 제시한 것이다. 모든 식이 총합될 수 있는 식은 일체일심식, 아리아식, 말나식, 의식의 네 가지이다. 이 중에 열 가지 아리아식과 열한 가지 말나식에 연관된 아리아식과 말나식을 자세히 검토해보기로 한다.

44) 『大乘起信論』(『大正藏』32, p.576中).

45) 본고에서는 첫 번째만 서술하므로 열 가지에 대한 내용은 표로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표 2) 『석론』의 심식설 분류

식의 수	식의 종류				해당경전		
1	일체일심식				일심법경		
	아리아식				아리아식경		
	말나식				현료경		
2	아리아식	의식			철화경		
3	아리아식	말나식	의식		능가경		
4	일심식	아리아식	말나식	의식	자운경		
5	일심식	아리아식	말나식	의식	수순변전식	대무량경	
6			의식	안이비설신식	사성제경		
7			말나식	의식	안이비설신식	법문경	
8	아리아식	말나식	의식	안이비설신식		도지경	
9	아리아식	말나식	의식	안이비설신식	암마라식	금강삼매경	
10	일체일심식	아리아식	말나식	의식	안이비설신식	암마라식	법문경

46) 圓測도 식의 수에 따라 성문장(6), 대승의 용맹(6)과 미륵(8)으로 분류하고, 미륵은 다시 보리유지 『유식론』(2), 진제삼장 『구식품』(9), 대당삼장 『능가경』 등(8)으로 세분화한다. 圓測, 『解深密經疏』, 백진순 역(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3), pp.78-83 참조.

47)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11上-中), “凡集一代諸聖說中異說契經 總有十種 謂從一種識乃至十種識 云何爲十種差別經 一者立一種識總攝諸識 此中有四 云何爲四 一者立一切一心識總攝諸識……二者立阿梨耶識總攝諸識……三者立末那識總攝諸識……四者立一意識總攝諸識……”

둘째는 아리아식을 세워서 모든 식을 총섭한다. 이른 바 아리아식으로써 장애의 뜻과 무장애의 뜻을 갖추어서 포섭하지 않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아리아식경』에서 이와 같이 설한다.……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했다. ‘말한 바의 통달총상식이란 바로 아리아식이다. 이 식에 애사와 비애사가 있어서 일체의 법을 갖추어 일체의 법을 갖춘다. 비유하면 대해가 물과 파도 등이 짓는 총상의 이름이 되는 것과 같다. 이 뜻이기 때문에 이름해서 총상이라고 한다.’⁴⁸⁾

셋째는 말나식을 세워서 모든 식을 총섭한다. 이른 바 말나식에 열한 가지의 뜻을 구축해서 포섭하지 않는 것이 없음으로써 하기 때문이다. 『현료경』에서 이와 같이 설한다. ‘여러 가지 심식이 비록 무량하지만 오직 말나만이 전(轉)할 뿐 다른 법은 있지 않다. 왜 그러하냐. 이 말나식에 열한 가지의 뜻을 구축해서, 짓지 않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⁴⁹⁾

우선 아리아식을 살펴보면, 『석론』은 아리아식을 하나로 세워 모든 식을 총합하는 근거로 『아리아식경(阿梨耶識經)』을 제시한다. 이 경에서 아리아식을 설명하는 애사(礙事)와 비애사(非礙事)는 『석론』에서 말한 장애(障礙)와 무장애(無障礙)에 해당하며, 『기신론』의 “불생불멸과 생멸이 화합하여 같지도 다르지도 않음을 아리아식이라고 이름한다”⁵⁰⁾는 아리아식의 정의에 부합한다. 비록 『석론』은 이 부분에서 총상으로 세워진 아리아식에 어떤 식이 내재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아리아식을 열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는 논리적 배경을 준비한 것으로 추론된다.

『석론』은 이어지는 뒷부분에서 ‘아리아식을 세워 모든 식을 총섭한다’는

48)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11上-中), “二者立阿梨耶識總攝諸識 所謂以阿梨耶識 具足障礙義無障礙義 無所不攝故 阿梨耶識契經中作如是說……佛告觀自在菩薩言 所言通達總相識者 卽是阿梨耶識 此識有礙事及非礙事 具一切法備一切法 譬如大海爲水波等作總相名 以此義故名爲總相故.”

49)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11中), “三者立末那識總攝諸識. 所謂以末那識具足十一種義無所不攝故. 顯了契經中作如是說. 種種心識雖有無量. 唯末那轉無有餘法. 所以者何. 是末那識具足十一義. 無所不作故.”

50) 『大乘起信論』(『大正藏』32, p.576中), “所謂不生不滅與生滅和合非一非異 名爲阿梨耶識.”

논리에 기반하여 아리아식에 열 가지 명칭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 독창적인 아리아식설을 입증하기 위해 아리아식 각각에 대응되는 『기신론』 부분을 밝히고, 근거가 되는 경전으로 『십종망상경(十種妄想經)』·『본각경(本覺經)』·『본인연기경(本因緣起經)』·『본성지경(本性智經)』·『대무량경(大無量經)』·『실제경(實際經)』·『제법동체경(諸法同體經)』·『과원만경(果圓滿經)』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말나식을 살펴보면, 『석론』은 『현료경(顯了經)』에 의거하여 ‘모든 식을 총섭하는 하나의 식’에 포함시킨다. 『석론』 제2권에서는 아직 열한 가지 말나식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인용된 『현료경』의 부분에서 이미 말나식에 열한 가지 뜻이 갖춰져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뒷부분에서 열한 가지 말나식의 등장을 암시하는 장치로 보이는데, 제4권에서 “저 경에서 열한 가지 뜻의 명칭을 생략하여 따로 말하지 않았으므로”라고 하면서 『현료경』을 지시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론』은 열 가지 아리아식과 열한 가지 말나식을 건립하기에 앞서, ‘하나의 식을 세워 모든 식을 총섭’하는 심식설의 종류를 제시한다. 비록 『석론』에서는 심식설의 분류와 아리아식 및 말나식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리아식과 말나식을 세분화하기 위해 미리 그 이론적 배경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2. 아리아식과 말나식의 상충과 해소: 일체일심식

『석론』은 열한 가지 말나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지만, 『기신론』의 다섯 가지 의에 해당하는 식과 상을 모두 말나식의 범주에 포함시킨 설정은 열한 가지 말나식의 업식·업상, 전식·전상, 현식·현상과 열 가지 아리아식의 업상업식아리아식·전상전식아리아식·현상현식아리아식이 동일한 영역을 공유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아리아식과 말나식이 서로 다른 식임에도 불구하고 업식·업상, 전식·전상, 현식·현상 부분에서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각 식이 놓이는 그 위치[地]가 같아지기 때문이다.

『석론』에서는 열 가지 아리아식과 열한 가지 말나식이 세 가지 미세한 상과

식에서 교집합을 이루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서술을 통해서 『석론』의 입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일곱 가지 식 및 장식은 같은가? 다른가?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두 변을 떠났기 때문으로, 해와 햇빛, 물과 파도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과 같다. 일곱 가지 식과 장식이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의미도 또한 이와 같다.⁵¹⁾

이와 같은 일곱 가지 변화하는 식은 안에서 나오지 않고 밖으로부터 오지 않고 가운데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오직 장식의 체가 변하여 일곱 가지 식을 만든다.⁵²⁾

『석론』은 아리아식인 장식과 말나식을 포함한 일곱 가지 식의 관계를 비유로 드러내는데, 해와 물은 아리아식을 나타내고 햇빛과 파도는 나머지 일곱 가지 식을 의미한다. 이 비유를 통해 『석론』은 아리아식과 말나식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음’을 말하는데 ‘다르지 않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리아식과 말나식이 다른 식이지만, 파도가 물에서 일어나고 햇빛이 해에서 나오듯 일곱 가지 식 가운데 하나인 말나식도 아리아식에서 생성되므로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말나식이 아리아식에 의지하여 발생한다는 것은 『기신론소』와 『대승기신론의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석론』이 처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⁵³⁾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리아식과 말나식을 일정 영역에서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은 『석론』만의 독창성이며, 그 배경에는 ‘일체일심식’이 있다고 추정된다. 이 식은 ‘하나의 식을 세워 모든 식을 총섭한다’는 첫 번째 심식설의 분류에서

51)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26下), “如是七識及與藏識 同耶異耶 非同非異 離二邊故 譬如日與光明水與波浪非同非異 七識藏識非同非異義亦如是.”

52)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27上), “如是七轉識 不從內來不從外來不從中來 唯藏識體變作七識.”

53) 『瑜伽師地論』(『大正藏』30, p.580中), “又由有阿賴耶識故得有末那 由此末那爲依止故意識得轉.” 비록 『기신론』과 제8식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말나식이 제8식을 의지함을 서술한다.

아리아식·말나식·의식에 더불어 ‘하나의 식’으로 제시되었다.

일체일심식을 세워서 모든 식을 총섭한다. 이른 바 일심식은 두루 두 가지의 자재에서 안립되지 않는바가 없기 때문이다. 『일심법경』에서 이와 같이 설한다. …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오직 한 가지의 식을 건립하고 다른 식은 건립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한 가지 식이란 많은 [식이] 오로지 하나의 식으로, 이 식에 여러 가지 작용이 있어 일체 여러 가지의 명자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식으로 마치고 다른 법은 없다. 이 때문에 나는 한 가지 식만을 건립한다고 말하고 다른 식은 건립하지 않는다.’⁵⁴⁾

‘일체일심식(一切一心識)’이란 용어는 오직 『석론』에서만 사용되는데⁵⁵⁾, 그 근거로 『일심법경(一心法經)]을 제시한다. 이 경전에서는 ‘일체일심식’을 ‘한 가지 식(一種識)’으로 표현하면서 다양한 식의 명자는 오직 한 가지 식의 작용 일 뿐임을 밝히므로 ‘일체일심식’은 ‘일체가 일심인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석론』의 식에 대한 관점은 “다음으로 아리아식은 아리아식으로 정해지지 않고, 말나도 말나로 정해지지 않고,……정해짐이 없기 때문이다. 장식은 말나이고, 말나도 장식이고,……또한 모두가 장식이고, 모두가 말나이고……”⁵⁶⁾라는 서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리아식과 말나식이라는 다른 명칭을 부여하여 그 성품을 차별짓지만, 일체일심식의 관점에서는 두 식이 모두 한 가지 식의 작용이므로 세 가지 미세한 상과 식의 영역을 공유해도 모순되지 않게 된다.

위에서 인용된 내용 외에 『석론』에서 일체일심식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54)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11上), “一者立一切一心識總攝諸識 所謂以一心識遍於二種自在無所不安立故 一心法契經中作如是說 … 佛告文殊言 我唯建立一種識 所餘之識非建立焉 所以者何 一種識者多一一識此識有種種力 能作一切種種名字 而唯一識終無餘法 是故我說建立一種識 所餘之識非建立焉故.”

55) 식설을 분류하는 부분에서만 총 3회 출현한다.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11上; 611下; 612上).

56)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30上), “復次爲欲顯示阿梨耶識非定阿梨耶 末那非定末那……以無定故 藏識末那 末那藏識……亦皆藏識 皆是末那…”

없으므로 일체일심식의 지위[地]에 대해 알 수 없다. 다만 심식설의 첫 번째 분류에서 ‘하나의 식’을 설정할 때 일체일심식→아리아식[8]→말나식[7]→의식[6]의 순서로 서술하는 것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순서에 근거한다면 일체일심식은 아리아식보다 앞에 언급되므로 제8식보다 상위에 위치한 식이 된다. 안넨(安然)이 『진언종교시의(眞言宗教時義)』⁵⁷⁾에서 『석론』의 심식설을 언급하면서 일체일심식을 아홉 번째에 위치시킨 것도 이와 같은 이유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⁵⁸⁾

IV. 나오는 말

『석론』은 『능가경』에서 제시된 식을 해석하면서 독창적인 관점을 드러낸다. 첫 번째는 『능가아발다라보경』의 현식과 『입능가경』의 요별식을 현상아리아식으로 설명한다. 『석론』의 ‘현상아리아식’은 아리아식을 창의적으로 해석한 열 가지 아리아식 중 하나로, 현식-현상이 아리아식에 있음을 표현한다. 또 다른 [대본이] 나뉘어 유전된 『능가경』에서는 업식·전식·현식으로 아리아식을 나타낸다. 두 번째는 세 가지 『능가경』의 분별사식을 거침과 미세함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을 의식과 말나식으로 이해한다. 이와 같은 『능가경』의 식에 대한 해석을 통해, 『석론』이 식을 아리아식·말나식·의식의 여덟 가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말나식과 의식을 하나로 보는지 분리해서 보는지의 차이에 따라 일곱 가지 또는 여덟 가지로 다르게 표현된다. 『석론』이 분별사식의 미세한 분위로 말나식을 정의하는 것은, 『능가아발다라보경』의 진상과 『입능가경』의 지상식을 말나식과 동일하게 놓는 해석에서도 드러난다. 더욱이 『석론』은 새로운 시각에서 말나식에 열한 가지 명칭을 부여한다.

57) 『眞言宗教時義』(『大正藏』75, p.374下), “答 龍樹摩訶衍論建立十識八識如常 第九一切一心識 第十一心一心識.”

58) 하지만 심식설의 분류에서 이 식이 제10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체일심식이 제9식이라고 확정할 수 없고 이 해석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열한 가지 말나식을 통해서 『석론』은 지상식에 대한 『능가경』 본래의 이해와 상충되는 자신의 해석에 정합성을 부여하고, 『석론』이 이해한 말나식의 성품 및 다른 식과의 관계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론』은 세 종류의 [대본이] 나뉘어 유전된 『능가경』의 식설을 해석하면서 열 가지 아리아식과 열한 가지 말나식을 통해 심식에 대한 독자성을 표출하지만, 다시 자신이 창안한 두 가지 개념 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열 가지 아리아식과 열한 가지 말나식은 세 가지 미세한 상·식인 업상업식·전상전식·현상현식의 영역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두 식이 동일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론』은 ‘일체일심식’이라는 식을 창조하여 ‘하나의 식을 세워 모든 식을 총섭’하는 ‘하나의 식’으로 설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일체일심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리아식과 말나식은 하나의 식의 작용으로 차별될 뿐 같은 식이기 때문이다.

즉, 『석론』의 독창적인 열 가지 아리아식과 열한 가지 말나식이 성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의 식을 세워 모든 식을 총섭한다’는 이론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리아식·말나식·일체일심식의 한 가지 식을 세워 모든 식을 포섭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리아식도 열 가지로 세분화 될 수 있고, 말나식도 열한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고, 일체일심식에 모든 식을 포섭하여 그 안에서 아리아식과 말나식을 동등한 위치에 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석론』이 새로운 개념인 열 가지 아리아식·열한 가지 말나식·일체일심식을 설명하면서 『일심법경』 등에 근거함을 밝혀 다른 경전의 내용을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석론』의 독창성에 대한 의문을 유발한다. 그러나 이 심식설은 『석론』의 독창적인 이론이라고 판단된다.

『석론』이 하나의 식을 세워 모든 식을 총섭하는 첫 번째 심식설의 분류에서 근거로 제시한 『일심법경』·『아리아식경』·『현료경』은 현존하지 않고, 인용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열 가지 아리아식을 입증하기 위해 『석론』이 현시한 여덟 가지 경전은 현존하지 않고, 경전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비록 어떤 경전이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석론』이 저술될 당시에는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전의 존재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리야식을 열 가지로 나누는 설정과 아리야식의 명칭 가운데 청정본각·염전본각·청정시각·염정시각과 같이 본각과 시각을 각각 청정과 염정으로 이분하는 설정은 『석론』에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말나식을 다중의 의미로 해석하는 시각 및 ‘일체일심식’이란 용어도 『석론』에서만 발견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석론』에 근거로 제시된 경전들은 실존했던 경전이라기보다는 『석론』의 저자가 독자적인 논리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논리에 부합되는 내용을 담아 창작한 경전으로 추론된다. 즉, 하나의 식을 세워 모든 식을 총섭하는 식의 분류, 일체일심식, 열 가지 아리야식, 열한 가지 말나식은 『석론』의 독창적인 심식설인 것이다. 그렇다면 『석론』은 그 당시 불교 사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식의 개념을 정립한 것일까? 그 해답은 동아시아불교사에서 일체일심식, 열 가지 아리야식, 열한 가지 말나식이 가지는 의의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기약하며 본 논의를 마친다.

참고문헌

1. 원전류

- 『楞伽阿跋多羅寶經』 大正藏16
- 『入楞伽經』 大正藏16
- 『瑜伽師地論』 大正藏30
- 『大乘起信論』 大正藏32
- 『釋摩訶衍論』 大正藏32
- 『起信論疏』 大正藏44
- 『大乘起信論義記』 大正藏44
- 『眞言宗教時義』 大正藏75
- 『悉曇藏』 大正藏84

2. 단행본류

- 圓測, 『解深密經疏』, 백진순 역,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3.
- 岩野眞雄, 『國譯一切經』, 東京: 大東出版社, 1929.
- 大竹晉, 『大乘起信論成立問題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2017.

3. 논문류

- 김지연, 「인용경전에 근거한 『釋摩訶衍論』의 저술시기 고찰」, 『불교학연구』45, 서울: 불교학연구회, 2015, pp.165-192.
- _____, 「『釋摩訶衍論』의 註釋의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2014.
- 이상민, 「초기 지론학파의 알라야식 개념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2018.
- Seong-cheol Kim, “Wonhyo’s View of the Ālayavijñāna”,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Vol.26, Seoul: Dongguk University, 2016, pp.85-115.
- 加藤精一, 「『釋摩訶衍論』に引用された『楞伽經』」, 『豊山學報』31, 東京: 豊山教學振興會, 1986, pp.1-14.

- 早川道雄, 『『釋摩訶衍論』における〈阿梨耶識門〉構圖の起源』, 『豊山學報』51, 東京: 豊山教學振興會, 2008, pp.107-134.
- _____, 『『釋摩訶衍論』卷第四 現代語試訳』, 『仙石山論集』3, 東京: 國際佛教學大學院大學, 2006, pp.1-48.
- 香川英隆, 『釋摩訶衍論の史的研究』, 『密教研究』8, 高野山: 密教研究會, 1922, pp.32-44.
- 中村正文, 『釋摩訶衍論の成立問題について』, 『印度学仏教学研究』34, 東京: 日本印度学仏教学會, 1986, pp.534-539.
- 望月信亨, 『釋摩訶衍論の眞偽』, 『佛書研究』26, 東京: 名著普及會, 1917, pp.1-5.
- 石井公成, 『釋摩訶衍論の成立事情』, 『鎌田茂雄博士還曆記念論集』, 東京: 大藏出版, 1988, pp.345-364.
- 関 悠倫, 『『釈摩訶衍論』の成立事情: 序の記述と武則天と則天文字』, 『密教学研究』50, 東京: 日本密教學會事務局, 2018, pp.93-109.

A Study on the Original Interpretation of Consciousness in the *Shi moheyan lun* 釋摩訶衍論

Kim, Jiyun
Research Professor
Geumgang University

The *Shi moheyan lun* (abbreviated as *Shilun*) is one of the commentary on the *Awakening of Mahāyāna Faith*. The creativity of the *Shilun* is shown in the explanation of three consciousness of the *Laṅkāvatāra-sūtra*. Following the analytical characteristics of its arguments, First, the *Shilun* defines the manifesting consciousness and the ‘consciousness which discern object’ of the *Laṅkāvatāra-sūtra* as the objective world-ālayavijñānas that included in ten ālayavijñānas which is made by *Shilun*.

Next, the *Shilun* divides the 'phenomena-discriminating consciousness' into the mano consciousness and the manas, and matches the latter to the real consciousness 眞識 and *zhixianshi* 智相識 of the *Laṅkāvatāra-sūtra*. Moreover, the *Shilun* classifies the manas into eleven from its original point of view.

However, it occasioned a problem because the eleven manases are to be overlapped with the ten ālayavijñānas in the mark of karma, subjective perceiver, and objective world. Therefore, it seems that the *Shilun* tries to solve that trouble by producing the new theory and the one consciousness that includes everything. Based on this, the ālayavijñāna and the manas could be separated into ten and eleven, and they could be equalled by including both in the one consciousness that includes everything.

Through this,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 *Shilun* expresses own perspective on

the ālayavijñāna and the manas, and, at the same time, resolves the conflictive interpretation with others. In addition, it could be seen that a new theory is established to solve the contradictions of its own logic and to give logical validity.

Keywords

the *Shi moheyān lun*, the *Awakening of Mahāyāna Faith*, the *Lankavatāra-sūtra*, the ten ālayavijñānas, the eleven manases, the phenomena-discriminating consciousness, the one consciousness that includes everything

2018년 11월 08일 투고

2018년 12월 11일 심사완료

2019년 03월 20일 게재확정

